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한라산 숲학교 (2)풍천초등학교

“몰랐던 숲 생물 보고 만져보니 재밌어요”

동백동산에서 생태체험 숲속 교육에 아이들 활기 “물 머금은 숲 향기롭고 식생물의 소중함 알게돼”



22일 제주시 조천읍 동백동산습지센터를 찾은 풍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붉은귀거북을 보며 숲 학교 체험을 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동물, 뿌리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식물이라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직접 숲속을 찾아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특히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딱딱한 교육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한다.

풍천초등학교 1·2학년 학생 30여명은 22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습지센터를 찾아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와 함께하는 숲 학교’에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동백동산습지센터 앞 잔디마당에서 돛자리를 펴고 앉아 고영민 제주양서류생태연구소 소장의 생물을 주제로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고영민 소장은 강의에 앞서 숲 학교의 교육 특색에 맞게 생물, 자연과 관련된 퀴즈를 내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학생들은 퀴즈를 맞히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또한 고 소장은 보관함에 넣어 가지고 온 누룩뱀 새끼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을 꺼내 만져보게 하며 학생들이 보다 쉽게 생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맞춤 교육을 이어갔다.

이후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숲길 탐방에 나섰다 동백동산 숲길 주차장에서 만물각 습지로 향했다. 해설

사는 탐방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동백나무 등의 식물과 숲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들려주며 알기 쉽게 풀어내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듣다 보니 어느덧 만물각 습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의 ‘만물’과 끄트머리라는 의미의 ‘각’에서 만물각이라는 지명이 유래됐다고 한다. 과거 생활용수나 가축 음용수로 이용하던 이곳은 물을 잘 통과시키지 않는 넓은 웅암지대의 옅은 모래에 빗물이 채워져 만들어진 습지이다. 이곳에서는 올방개, 고

마리, 남쪽삼릉 등의 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팔색조,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등 멸종위기 희귀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비가 내린 터라 습지는 평소와 다른 운치를 자아냈다. 또 물을 머금은 숲의 향기는 코끝을 맴돌며 힐링을 선물했다. 학생들은 습지에서 다양한 식물 등을 구경하고 해설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숲의 의미도 되새겼다.

김미아(풍천초 2학년)양은 “(교육에서)뱀을 직접 만져보았는데 촉감이 엄청 부드러웠다. 숲을 찾아 생물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돼 좋았다”고 말했다.

풍천초 관계자도 “코로나19 여파로 야외수업에 제약이 많이 따랐는데, 이번 숲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피로감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고영민 소장은 “어린 시절에는 마음이 열려있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생긴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생태계에 관련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자연, 동물 등을 보존에서부터 복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3일 금요일 음 9월 7일 (14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14℃, 낮 최고 기온은 16-17℃로 나타났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 오전 | 강수 확률 | 제주 | 오후 |
|-----|-------|-----|-----|
| 20% | 20% | 30% | 30% |
| 20% | 20% | 20% | 20% |
| 20% | 20% | 30% | 20% |
| 20% | 20% | 20% | 20% |

| | |
|-------------|-----------|
| 해돋이 06:45 | 달뜨기 13:28 |
| 해질미 17:51 | 달지기 23:35 |
| 물때 만조 02:37 | 간조 09:38 |
| 17:26 | 23:47 |

주간예보

| | | |
|----|-------|--------|
| 내일 | 구름 많음 | 11/18℃ |
| 모레 | 구름 많음 | 13/20℃ |

생활·안전 기상정보

| | |
|--------|-------|
| 감기가능지수 | 자외선지수 |
| 보통 | 보통 |

전통시장 갑시다!!

| 전통시장명 | 장 서는 날 |
|----------|--------|
| 제주시민속오일장 | 2. 7 |
| 한림민속오일장 | 4. 9 |
| 세화민속오일장 | 5. 10 |
| 함덕오일장 | 1. 6 |
| 고성오일장 | 4. 9 |

| 전통시장명 | 장 서는 날 |
|----------|--------|
| 서귀포향토오일장 | 4. 9 |
| 성산오일장 | 1. 6 |
| 중문향토오일장 | 3. 8 |
| 표선오일장 | 2. 7 |
| 대정오일장 | 1. 6 |

제주 인구대비 교통사고 최다 ‘오명’

지난해 10만명당 669건 발생

제주지역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는 전국 평균 444.02건이었다.

같은 기간 제주에서는 668.95건이 발생해 다른 지역보다 평균 200건 이상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제주지역에 가장 많아 1033.75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남 1009.91명, 충북 955.8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인구 70만명의 제주도가 인구 10만 기준 교통사고 발생 최

다 지역이라는 오명을 쓴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주도 국회의원으로 지속적으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테크노파크 수의계약 부적절” 도감사위, 경찰에 수사의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테크노파크(JTP)의 수의계약과 관련 부적절하다고 판단,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감사위는 지난 8월 JTP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고, 당시 수의계약 3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수사 의뢰 건은 벤처마루 주차장 사전무인정산기 시설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JTP는 지난해 4월 1725만원 상당의 무인정산기 시설공사와 관련해 계약자격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감사위는 수의계약 업무와 관련해 관계자 1명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백극타기자 haru@ihalla.com

한림읍 수원리 주민들 “동의없는 해상풍력 반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주민들이 수원리 앞바다에 추진중인 해상풍력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리 주민들로 구성된 ‘한림읍 수원리 해상풍력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22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책위는 “해상풍력사업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원리 주민들의 동의 절차는 없었으며, 이장·운영위원장 등 소수의 의견으로 제주도가 심의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주민총회 등 주민들의 동의 없었음에도 제주도·수원리장·수원리운영위원장이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산지천 '지붕없는 미술관' 변신 제주시가 주최하고 아트페스타인제주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아트페스타인제주 개막을 앞두고 원도심 산지천 일대에 설치미술 작품이 펼쳐지고 있다. 아트페스타인제주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강희만기자

Jeju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감귤수확” 작업에 참여할 영농인력을 모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는 “감귤수확” 작업에 참여할 영농인력을 모집합니다.

「감귤수확」 작업참여

- ◆ 작업 참여기간 :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이후는 농장주와 협의 하에 연장가능)
- ◆ 작업내용 : 감귤농장(감귤수확)
 - 작업장 배치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임의대로 지정
 - 인건비는 농장주가 작업 속련도에 따라 차등 지급(중식 : 농가제공, 조·식식 : 자체 해결)

신청기간 2020. 10월 ~ 10월말

신청장소 농협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720-1290)

신청조건 제주지역 거주 70세미만의 농사 유경험자로 최소 20일 이상 참여 가능한 분 ※ 여성 참여자 우선 모집

지원사항 - 교 통 편 [단체이동] 20~40인 1개반으로 편성 전세버스로 이동
[조별이동] 4~5명 1개조로 편성 자체이동(1개조 1일 20,000원 유류비 지원)
- 상해보험 : 고용인력이 농작업 중 부상 등 사고 시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가입

제 주 농 업 인 력 지 원 센 터

Jeju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